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학교법인 경희학원 통합지부 설립 취지문

- 학교법인 경희학원 산하 기관의 비정규·정규직이 함께하는 새 노조를 결성하자 -

들어가는 말

지난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길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되살리고자 하는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은 촛불로, 횃불로 타올라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촛불 대통령의 탄생을 이끌어 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라는 노동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① 비정규직 규모 감축과 차별 해소 ②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초기업 단체교섭 강화 ③ 노동자 경영참여 확대 등을 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수개월간 가시적인 성과들을 보이고 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는 대다수 촛불 시민의 염원이며, 노동자들의 당연한 요구이다.

지난 10여년, 경희학원의 상황

비민주적인 지배구조(거버넌스)와 세습 학원으로 개교 70년을 맞을 셈인가?

조인원 총장의 지난 10여년, 더 나아가 70년간 경희학원의 상황은 어떠했던가? 우리 대학의 교훈은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이다. 그러나 교훈이 무색하게도, 초대 총장이 임명된 1955년 3월부터 2017년 12월말까지, 총 62년 10개월 중 설립자 부자가 총장을 역임한 기간은 47년 8개월로, 3/4의 기간 동안 설립자와 그 아들들이 공공기관인 대학의 선출되지 않은 권력자로 군림해 왔다. 물론, 경희학원의 이사와 이사장이었던 기간까지 합산한다면, 약 70년간 어느 한 순간도 경희학원은 구성원이 주인인 학원이었던 적이 없었던 사적 기관이었다. “학원의 민주화”를 지향점으로 말하면서, 스스로는 70년간 구성원의 뜻과는 관련 없이 군림해 온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었다.

무책임하고 무능한 리더십, 악화된 재정 및 경영상황은 바닥없이 추락한다.

안타깝게도 지난 10여 년간 대학의 재정 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발전기금을 천억 원 가까이 털어 썼지만, 대학은 1990년대 배경의 영화와 드라마의 배경으로 자주 사용되었다. 낡은 배관이 터지고, 타일이 떨어지고, 학생회실 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10여년간 수차례 요란하게 팡파르만 울리던 마스터 플랜, 스페이스 21이 지체된 결과였다. 건물 설계와 디자인이 수시로 뒤집히고 시공업체가 변경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어마어마한 손실을 끼쳤다. 그리고, 수억원 짜리 연봉의 외부 경영인을 영입하여 수조원의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큰소리를 치더니, 2,3년이 되지 않아 아무런 성과도 없이 막을 내렸다. 그리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대학평가를 위해서 백 여명의 교원을 총원하라고 하지만, 정작 우수한 교원들에게 제공할 공간도 재정도 없다. 노동자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할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조차도 없다. 인력이 없고 시간이 부족해 야근하는 노동자에게, 줄 돈이 없으니 다른 날 쉬라는 소위 변형근로시간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한다. International Scholar, Eminence Scholar라는 미사여구로, 1인당 년 수천만원을 지불하며 외국 대학 교수의 논문을 사오면서 학자로서의 부끄러움도 없다. 자율운영이라는 미명하에 예산이 낭비되고 비효율적인 업무가 늘어나고 있지만, 모르쇠로 일

관한다. 지난 수십년간 의한치대교수들의 임금을 재단전임금이라고 눈속임하고는, 법적으로 문제없으며 관례라고 항변한다. 법인은 마땅히 지불 의무를 지닌 사학연금 부담금을 등록금이 주재원인 교비로 대학 측에 부담지우고 있다. 산하 기관들의 교육과 경영에 필요한 법인전임금조차 실제 연 10억원 남짓으로 전체 대학 예산의 0.2% 꼴이다. 최소한의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설립자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습 받은 왕국처럼 학원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신이 감추어둔 직장, 그러나 신도 잘 모르는 노동여건, 그리고 과반이 넘는 비정규직 비율

소위 신이 감추어둔 직장이라고 각광받던 대학 내 노동자의 현실은 요즘 그리 녹록하지 않다. 인원감축 상황 속에서 수 년 만에 채용된 신입직원들이 1년을 버티지 못하고 퇴사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젊은 동료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까지 했다. 무능하고 책임지지 않는 리더십 하에서 부서와 업무는 늘어났고, 정규직 행정인력은 줄고 있으며, 청소 및 관리, 기술직 노동자는 외부용역이 되었고, 사무직 계약직과 파견직의 비율은 이미 전체 행정직원의 50%를 훌쩍 넘어선지 오래다. 이는 수도권 주요 대학 중 비정규직 비율 3위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한다. 이러면서도 후마니타스, 인문학적 가치를 지향하고 문화세계의 창조, 경희 가족정신을 말할 수 있는가.

왜 지금 경희학원 산하 기관 통합노동조합의 설립이 필요한가?

30년 정규직 중심, 기득권 중심의 경희대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반성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87년. 경희대학교 노동조합 설립의 키워드는 군사독재 정권과 족벌 부패 사학재단 척결이었고, 더 나아가 사회의 민주화와 직장(대학)의 민주화였다. 그러나 당시 대학 직원은 독재 권력의 말단 하수인, 족벌 사학재단의 이익을 보호하는 어용 역할로 구성원 및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었으며, 교직원의 노동기본권을 존중받지 못했다. 이에 노동조합의 설립을 통해,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던 어용성을 반성하고 사회와 대학의 민주화에 동참함으로써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로부터 행정직원도 학생, 교원과 함께 대학의 구성원의 한 주체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 대학은 관리환경기술 기능직 대신 외부용역을, 정규 행정직원 대신 저임금의 연봉계약직, 고용직, 학사전담직, 계약직, 부서계약직, 파견직을 채용하기 시작했다. 경희사이버대학은 대다수의 비정규직 직원과 조교들로 채워졌고, 산학협력단에는 프로젝트 계약직, 대학의 행정직원과는 별도의 임금체계와 사학연금 혜택조차 받을 수 없는 제2의 정규직, 소위 '중규직'이 등장했다. 물론 경희대학교 노동조합은 고용직, 학사전담직의 사무직 전환, 비정규직 임금 인상, 스스로 임금동결을 통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단체협약으로 맺는 등 대학 내 노동 약자의 차별철폐와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우리의 기득권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노동 약자들의 등장과 부당한 차별과 대우에 조용히 눈감아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러한 기득권 중심의 노동조합 운동을 통렬히 반성한다.

시대적 흐름과 요구 -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이 답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현 문재인 정부는 ① 비정규직 규모 감축과 차별 해소 ②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초기업 단체교섭 강화 ③ 노동자 경영참여 확대를 지향으로 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의견이 아니며, 다수의 촛불 시민의 열망과 시대적 요구이다. 우리는 크고 새로운 열린 틀에 새로운 가치를 담고자 한다. 경희학원 내 흩어진 모든 노동자의 단결된 힘을 결집하여,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특히,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앞두고, 과연 법인과 대학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는 현재 학원 내 비정규직의 인원과 규모, 재정상황을 볼 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긍정적 방향이 아닌,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에게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 감축과 노동 강도심화라는 불행한 결말이 될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예견할 수 있다. 노동권 강화와 보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경희정신이 이것을 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은 향후 우리 경희학원과 대학이 건강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생존 관건이 될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지향하는가?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학교법인 경희학원 통합지부는 아래의 3가지 가치를 지향한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정규직 전환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은 OECD내에서도 최고수준이며, 자본주의의 총아인 IMF까지도 비정규직 비율을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을 정도이다. 높은 비정규직 비율은 저임금, 고용불안을 통해 소비감소와 경제불황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오히려 자본주의의 걸림돌이다.

인문학적 가치를 노래하는 우리 학원에서는 저임금의 값싼 노동력으로 비정규직 직원과 교원을 남용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노동유연성이 필요한 곳에 한정적으로 최소화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의거하여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학원에 현존하는 각종 형태의 비정규직종의 차별을 철폐하고 정규직 전환을 지향한다. 이를 통해 정당한 노동의 댓가와 삶의 가치를 되찾을 수 있게 하며, 학원내에 안정적인 교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자 한다.

노동 약자의 보호와 산별노조 활동을 통한 단결력과 교섭력 강화

사측은 끊임없이 여러 직종을 만들어내며 차별대우하며 노동자들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이 덫에 걸려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기 십상이다. 지난 20여년 우리가 분열하는 사이에, 정규직이었던 환경, 관리, 기술 기능직들은 대부분 외부용역화 되었고, 사무직종 조차 50% 이상 비정규직으로 채워진 상황이 되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노동자의 전체적 힘의 약화이다. 그 동안 노동조합 운동으로 겨우 겨우 쌓아왔던 행정직원의 위상이 바닥으로 추락하게 된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메마르고 낮은 땅에 물이 고이듯, 소외되고 차별받는 노동 약자에게 먼저 향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메마른 땅을 적시고 낮은 땅에 차오른 물은 거대한 배를 띄워 올릴 것이다. 경희학원 전체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지렛대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정규직들을 역차별하거나 소외하겠다는 말은 아니다. 우리는 법인 산하 대학(사이버 포함) 등 각 기관의 직종별 비정규·정규직 노동자와 동지로서 함께 하여, 연대의 외연을 넓히고 강화해 나갈 것이다.

산별노조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큰 조직으로 단결된 노동자만이 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다. 지난 30년간 경희대학교 노동조합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번번이 깊은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사측은 계속 우리를 기만해 왔으며, 끊임없이 단체협약을 위반해 왔다. 직원 사회에는 깊은 무력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다. 우리는 올바른 지향만큼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의 가입은 연대를 통하여 그 동력을 우리에게 제공할 것으로 믿는다. 우리는 산별노조 대 학교법인의 단체교섭을 통하여 높은 차원의 교섭력과 실행력을 담보하고자 한다.

민주적 학원 운영 및 교육 주체로서 정당한 자리매김

이를 통하여 우리는 무능과 무책임, 비민주적인 리더십으로 표류하는 경희 학원의 운영을 정상화하고자 한다. 우리는 봉건적 세습총장을 거부하며, 구성원이 주인 되는 민주적 총장선출과 구성원의 법인 이사선임 동의권 제도의 규정화 등을 통해, 진정한 학원의 민주화를 이뤄내고자 한다. 직원이 학생, 교원과 함께 학원 운영의 3주체 중 하나로서 정당한 자리를 잡고, 마침내 비정규직과 차별받는 노동자가 없는 아름다운 대학을 건설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경희 학원의 창학이념과 교훈을 이뤄내고 대학의 공공성을 회복하며,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되살리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대학 및 사이버대학 내 비정규·정규직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을 촉구한다. 교원 노조가 설립되면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경희의료원 지부 및 초·중고교 전교조 분회 등과 함께 가칭 “학교법인 경희학원 총 노동조합 연합체”를 결성하여 병원 및 교육 기관장의 민주적 선출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연대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경희대학교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종원, 박경규, 장백기 우리 세 사람은 노동자들의 단결된 조직만이 교육 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 우리의 삶이었던 경희대학교 노동조합 30년을 성찰, 극복하기 위해, 경희대학교 노동조합을 떠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기관과 기관, 직종과 직종 간의 벽을 뛰어 넘는 새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마중물이 되고자 한다. 이에 경희학원 통합지부의 출발을 알리며, 함께 어깨 걸 모든 이들의 참여와 단결된 합성을 기다린다.

2017년 10월 11일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학교법인 경희학원 통합지부 설립 공동준비위원장

김종원 (서울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박경규 (국제캠퍼스 전자정보대학)

장백기 (서울캠퍼스 창업보육센터)

참고1 : 조합원 가입대상

학교법인 경희학원 정규직·비정규직 직원

학교법인 경희학원 산하 자회사 정규직·비정규직 직원

경희대학교 정규직·비정규직 직원

경희사이버대학 정규직·비정규직 직원 및 조교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규직·비정규직 직원

경희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정규직·비정규직 직원

참고2 : 조합 가입 문의 및 가입원서 제출

khlaborunion@daum.net